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

김 유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김유경·조대회(1994), 『우리 나라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를 요약한 것이다.

I. 서론

1. 본 연구의 의의

가족을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보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가족이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가족규모는 어떠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시대가 바뀔때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변화추세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는 물론 한 국가를 경영하는 정책결정자에게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자들이 가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나마 인구연구의 다른 분야 즉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에 비해 아직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Burch, 1979). 일찍이 UN의 인구전문가들도 결혼력을 포함하여 가족과 가구에 관한 연구가 인구학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지적한 바 있다(UN, 1973). 가족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다루는 주제가 매우 복잡한데다가 개념정의의 표준화와 가구와 가족을 분석하는 절차와 모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Bongaarts, 1983).

이러한 사정이 우리 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연구가 그 터를 잡게 된 계기는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을 수립할 1961년 당시 인구문제의 해결, 더 정확히 말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억제 없이는 경제개발의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관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의 노력과 이해를 같이하고 이에 대해 넉넉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되어 인구연구에 일종의 봄이 일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인구연구는 다분히 실용적이고 정책적이었으며 그 내용면에서 출산력 중심적이었다. 따라서, 사망력이나 인구이동 특히 가구(가족)와 결혼에 관한 인구학적인 연구는 거의 불모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는 주로 초혼연령이 출산력의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 초점이 모아졌고 가구에 관한 연구

로는 몇차례 가구수 추계가 시도된 정도이며 그나마 정책결정의 자료로서 체뒀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나라의 출산력이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감소하고 21세기 초에 가서는 인구성장의 정지, 어쩌면 인구감소를 눈앞에 두게 되어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그 전략을 전면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계획의 성공이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맞물려 가족구조 혹은 가구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의 생애주기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생활양식, 그리고 가족가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이 변화가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가져다주리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력감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몇 안되는 실증적 연구 중 두개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의 가족생활주기 조사』(1986)와 『한국 가족기능 연구조사』(1989)이다. 이 두 조사는 매우 의욕적인 시도로서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지만 그간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그 방향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그 문제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다.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현학적인 분석도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가구 및 가족의 변화와 그 변화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데는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있어 표본조사의 결과에 비할 바 없는 인구센서스 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장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작업은 이와 같은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하여 우리 나라 가구변동의 추이를 일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창으로서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며 종국적으로는 국가복지정책 등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가구의 정의와 작업의 범위

사회과학으로서 인구학은 당연히 가족의 외형적인 측면 즉 규모와 구성 및 그 변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가구를 연구대상 혹은 연구단위로 삼는다. 따라서 이 연구작업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와 이에 관련된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UN에 따르면 가구는 『취사와 기타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단위』이다(UN, 1958: 4). 가구원은 보통 벌어들인 소득을 일단 한 데 모아 지출한다. 기본적인 생활에는 주거생활이 포함되므로 이 정의에 따르면 가구원은 당연히 동일한 거처에 거주해야 한다. 또 이 정의에서는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집을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는 학생도 한 가구를 구성하는 셈이다. 가구원은 상호간 반드시 어떤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혈연적으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모여 한 가구를 이룰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가족은 '결혼과 혈연 혹은 입양을 통해 일정한 정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구원'을 말한다(UN 1958: 5). 이 정의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가구가 한 가족을 이룰 수 없지만 한 가족에 두 가구가 있을 수는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한 가족이 두 곳에 갈라서 사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 가구는 한 사람으로 이뤄지는 경우 즉 1인가구가 가능하지만 1인가족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족의 요체는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가구와 가족의 형성과정이나 형태가 비교적 단조롭기 때문에 UN의 정의를 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고 각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파악하면 가구와 가족의 구조에 관하여 비교적 풍부한 정보를 얻어내고 나아가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센서스가 처음부터 동일한 정의아래 가구사항이 집계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제표된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아래 비교적 자세히 센서스 결과를 보고한 것은 1966년부터이다. 아마도 그 이후의 것은 1966년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약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1966년도 센서스 보고서에 수록된 용어의 정의 중 가구에 관한 것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경제기획원, 1969: 6~7).

가구: 가구라 함은 1인(독신자) 또는 수인이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독립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두가지로 구분한다.

- ① 보통가구: 가구주를 중심으로 거래불이가 한데 모여 살거나 또는 1 가구를 형성하여 사는 독신자 가구를 말한다. 즉 가구주와 그 가족만이 살고 있는 집, 가구주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사람(하숙생·동거인·식모·머슴·점원 등), 혼자 살림하는 단독가구, 단, 독립된 부엌시설을 갖춘 살림집.
- ② 준가구: 보통가구 이외에 전혀 혈연관계(거래불이)가 없는 사람끼리 살고 있는 가구.
 - 1인 준가구: 보통가구에 주거를 같이하나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

신자로서 부엌시설이 없는 가구

- 기타 준가구: 보통가구에 거주하는 영업사용인 중 6인 이상의 집단, 또는 합숙소, 기숙사, 병원, 요양원 등의 합숙인 및 입원환자와 거주가 일정치 않은 연예인, 걸인 등. 단 병원, 양로원의 입원환자 또는 특수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에 달한 자 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1980년부터 보통가구에 대응하는 가구형태로서 준가구 대신에 집단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 외에는 이상과 같은 가구의 정의와 분류는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가구변동의 분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다만 가구주율의 분석에서는 가구의 특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이 필수적인데, 차츰 개선되어 오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큼 자세하게 집계하여 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1985년 센서스 보고서부터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자세한 집계표를 수록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자세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면의 연구작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작업에서는 주어진 자료 곧 센서스 보고서에 게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장래의 가구수와 구조를 추계하고자 한다.

II. 가구규모와 가구구조의 변동

1. 가구수 및 평균가구원수의 변화

우리 나라의 총가구수는 1960년의 4,362,953에서 1990년의 11,354,540으로 무려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에 인구가 약 1.7배로 늘어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가구수가 인구수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평균가구원수 즉 가구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가구수는 인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가구증가율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60~1966년의 인구증가율과 가구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 2.71%와 2.76%로서 거의 비슷하였지만 1966년 이후에는 가구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왔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1960년대 이후부터 얼마나 격심한 사회변동을 겪어 왔는가를 보여주며 이 시기부터 산업화에 들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구증가에 비해 가구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구의 분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인구의 비중이 줄고 도시에 거주하는 봉급생활자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들 중에 독신자와 소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표 1> 가구수와 평균가구원수 및 가구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960~1990
(단위: 명, %)

구분\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보통가구수	4362953	5121610	5792983	6647778	7969201	9571361	11354540
평균가구원수	5.56	5.43	5.18	5.13	4.62	4.16	3.78
준가구집단가구	15020	11300	63918	106479	23767	16741	15620
전체가구수	4377973	5132910	5856901	6754257	7992968	9588102	11370160
연평균가구증가율	2.76	3.35	2.89	3.37	3.72	3.70	
연평균인구증가율	2.71	1.90	1.98	1.50	1.57	1.46	

자료: 1) 1960~1980년: 최봉호(1990: 260).

2) 1985~1990년: 통계청(1992b).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를 <표 2>에서 보면 1990년에는 시부나 군부 다같이 평균가구원수가 3.7명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농촌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농촌가구가 축소되는 현상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인구이동이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농촌지역의 출산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농촌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면 농촌의 평균가구원수가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더 작아질 가능성도 높다.

<표 2> 시·군부별 평균가구원수의 변화, 1966~1990

(단위: 명)

지역\연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시부	5.1	4.9	4.8	4.4	4.0	3.7
군부	5.7	5.5	5.3	4.7	4.2	3.7

자료: 통계청, 각 해당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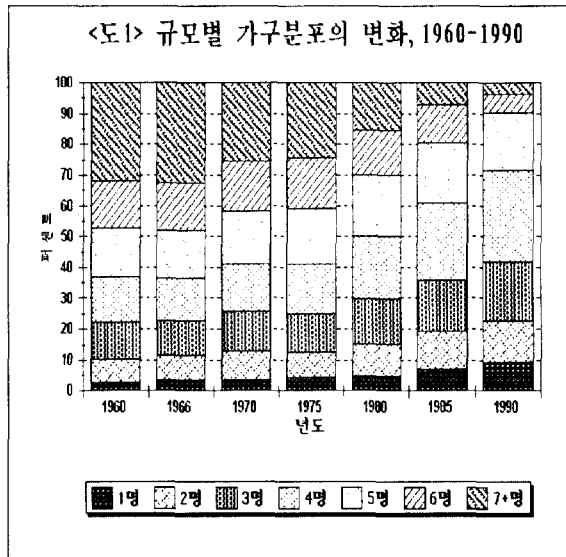
<표 3>은 1960년 이후 최근까지의 가구규모별 가구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우리는 7인 이상의 대가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반대로 1인가구(단독가구)가 그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975년까지는 5인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1980년 이후는 4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게 되었다.

<표 3> 규모별 가구분포의 변화, 1960~1990

(단위: %)

크기\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	2.8	3.6	3.7	4.2	4.8	6.9	9.0
2	7.6	7.7	9.3	8.3	10.5	12.3	13.8
3	11.8	11.5	12.8	12.3	14.5	16.5	19.1
4	14.7	13.9	15.2	16.1	20.3	25.2	29.5
5	15.9	15.2	17.2	18.3	20.0	19.5	18.9
6	15.3	15.4	16.1	16.6	14.7	12.4	5.9
7	12.7	13.1	12.2	11.7	9.7	4.2	2.5
8	8.9	9.1	7.3	7.7	3.0	1.9	0.9
9	5.8	5.9	3.6	2.5	1.5	0.7	0.3
10+	4.5	4.6	2.6	2.3	1.0	0.4	0.1

자료: 통계청, 각 해당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가구구조의 변화

우리 나라 센서스에서 가구분류가 동일한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못해 왔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의 가구 혹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의 변화를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1960년에는 가구에 포함되는 세대수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쳤다. 단독가구도 1세대 가구에 포함시켜 표를 작성하고 있고 비혈연가구는 일반가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66년에는 일반가구를 혈연가구, 비혈연 가구, 단독가구로 나누고 이 혈연가구에서 비혈연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를 기타의 친족가구로 따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집단가구, 준가구가 아닌 경우를 비친족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1970년에는 다시 1960년과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1975년에는 비혈연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1980년과 1985년에는 1966년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966년과 다른 점은 비혈연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분류상의 일관성 결여를 무릅쓰고 세대수별 가구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이 표에서 핵가족은 UN의 정의에 따라 부부가구와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 편부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구를 핵가족으로 보고 집계한 것이다.

<표 4> 세대수별 일반가구수 및 핵가족수의 변화, 1960~1990

구분\년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 체	4370599	5057030	5576277	6647778	7969201	9571361	11354540
1세대가구	325909	277880	376468	446826	658416	915529	1219667
2세대가구	2798160	3316590	3905660	4580227	5457340	6412196	7529077
3+세대가구	124610	1178700	1294149	1339718	1353745	1422830	1418091
기타가구	-	127480	-	-	-	-	-
비혈연가구	-	38920	-	-	116957	159865	166224
단독가구	-	117460	-	281007	382743	660941	1021481
핵가족	-	3273410	3988641	4499221	5445321	6586227	7726327

자료: 통계청, 각 해당연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주: * 미상가구 423 포함

이 표에서 단독가구를 포함한 1세대 가구가 1960년 이후 30년간 거의 5배로 증가하여 전체 일반가구가 약 2.2배 증가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2세대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최근에 이르러 전체 가구수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절대치로 보아서는 3세대 가구수도 줄지는 않았지만 그 증가속도가 전체가구수의 그것에 훨씬 하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독가구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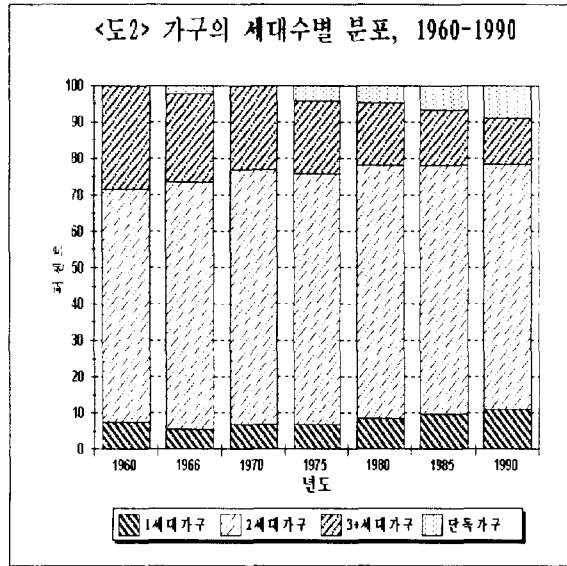
핵가족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특히 1966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 1.22배나 증가한 것과 1970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1.13배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좀 이례적이다. 우선 이상의 변화를 더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 세대수별 가구의 분포와 핵가족비율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 표 중 1966년에는 기타가구가 3세대 이상 가구에 포함되었으므로 다른 년도에 비해 3세대 가구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또 1960년도의 1세대 가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단독가구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체적으로 그 구성비가 1세대 가구에서는 계속 늘어나 왔고 2세대 가구에서는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3세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1960년과 1970년의 수치를 알 수 없지만 단독가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3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도 II> 참조).

<표 5> 일반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및 핵가족비율의 변화, 1960~1990
(단위: %)

구분\년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세대가구	7.46	5.50	6.75	6.72	8.26	9.57	10.74
2세대가구	64.03	65.58	70.04	68.90	68.48	66.99	66.31
3+세대가구	28.51	25.83	23.21	20.15	16.99	14.86	12.49
비혈연가구	-	0.77	-	-	1.47	1.67	1.46
단독가구	-	2.32	-	4.23	4.80	6.91	9.00
핵가족비율	-	64.73	71.53	67.68	68.33	68.81	68.05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 해당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핵가족의 비율(prevalence of nuclear family)이 1975년보다 1970년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매우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가구분류의 일관성 결여, 특히 1970년도에 단독가구를 1세대 가구에 포함시킨 것이 핵가족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사회변동, 특히 도시화 및 산업화가 어떻게 가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센서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분석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성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구주의 정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UN의 정의에 의하면 “다른 가구원들이 그렇게(가구주)로 인정하는 가구원”이다(UN, 1958: 5). 여기서 약간 발전시킨다면 “한 가구의 가계를 주로 책임맡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계를 책임진다는 말 자체가 갖는 모호성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된다.

한편 우리 나라 센서스에서는 “가구주란 호적법상 호주 또는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여 역시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령서 p.39 및 지도요령서 p.23).

그리고 가구주를 사회학적인 용어로 하면 가장인데 가장은 가족성원간 지배와 복종의 체계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표 6>에서 살펴보면 1975년에 12.8%였던 여자가구주 구성비가 1980년에는 14.7%, 1985년과 1990 모두 15.7%라는 수치에 이르고 있어서 여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6가구 중 한 가구는 여자가 가구주인 셈이다. 여자 가구주의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15~24세의 저연령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연령층에서 여자가구주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같은 연령층의 남자 가구주는 그 증감에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저연령층 가구주에서 여자의 비중이 점점 커져온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짐에

<표 6>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연령	1975		1980		1985		199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87.2	12.8	85.3	14.7	84.3	15.7	84.3	15.7
~ 14	0.08	0.02	0.05	0.03	0.03	0.02	0.01	0.01
15~24	3.1	1.3	3.2	1.8	2.9	2.3	2.2	1.7
25~29	9.0	0.7	9.7	0.8	10.5	1.1	9.2	1.1
30~34	14.0	0.8	13.4	0.9	13.9	1.0	15.2	1.1
35~39	15.3	1.3	12.9	1.2	12.6	1.2	13.1	1.2
40~44	12.5	1.7	12.7	1.6	11.0	1.4	10.8	1.3
45~49	9.4	1.9	10.4	1.9	10.4	1.7	9.2	1.5
50~54	8.4	1.7	7.4	1.9	8.2	1.8	8.4	1.7
55~59	6.4	1.3	6.3	1.7	5.6	1.7	6.4	1.8
60+	9.0	2.1	9.3	2.9	9.2	3.5	9.8	4.3

자료: 통계청, 각 해당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따라 가족을 떠나서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설명은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집계한 <표 7>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표 7>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혼인상태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남자							
유배우	92.5	93.7	94.0	93.1	92.9	92.3	91.2
사별	3.0	2.4	1.8	1.9	2.0	1.6	2.0
이혼	0.4	0.3	0.3	0.3	0.4	0.5	0.8
미혼	4.1	3.6	3.9	4.7	4.7	5.6	6.0
여자							
유배우	27.9	33.6	27.3	24.5	22.3	22.7	17.7
사별	64.8	59.9	61.6	59.4	58.1	52.3	56.3
이혼	4.8	3.9	5.6	4.3	3.9	4.3	5.6
미혼	2.5	2.6	5.5	11.8	15.7	20.7	20.4

자료: 통계청, 각 해당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표 7>은 남자 미혼가구의 비율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여자 미혼가구의 구성비가 계속하여 크게 늘어나 온 것을 보여준다. 남자의 미혼가구의 구성비가 1960년에 4.1%에서 30년 후인 1990년에 6.0%로 1.5배 남짓 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같은 기간 중에 2.5%에서 20.4%로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서 이혼한 여자가구주의 구성비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가구주의 구성비는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에 와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유배우 가구주의 구성비의 변화는 다른 혼인상태 구성비 변화의 잔여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자의 경우 사별한 가구주의 구성비가 여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여자의 평균수명이 긴데다가 남자는 대부분 연하의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또한 남자의 유배우 가구주의 구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여자의 지위향상 보다는 미혼가구의 구성비가 늘어나는 것의 여파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가구주율의 변동

인구의 가구구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연령별 가구주율이다. 가구주율은 가구주의 수를 그 가구주가 속해 있는 인구로 나뉘 얻은 값이다. 이 가구주율은 주로 성별, 연령별로 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특수 가구주율을 구할 수 있다.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규모별 가구주율을 구할 수도 있고 자료만 있다면 각 특성을 조합하여 복합적 특수 가구주율을 얼마든지 계산해 낼 수 있다.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을 계산하는 데는 인구와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분포가 필요한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별 연령별로 가구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1975년 이후부터이다. 1966년에도 가구주가 성별 연령별로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연령구분이 10세 간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제외시켰다. 1975년 이후의 가구주율을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이 <표 8>에서 남자의 가구주율은 매우 낮은 저연령층에서 시작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증가속도가 완만하여져서 50~54세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특유의 형태가 어느 센서스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남자와는 판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남자와 같이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속도가 느리면서도 거의 일직선으로 59세까지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남자의 가구주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1975~199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1990년에 와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5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전보다 낮아졌지만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이같은 가구주율의 변화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는 주어진 자료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975~1985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꾸준히 늘어다가 1990년에 와서는 45~49세와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줄어들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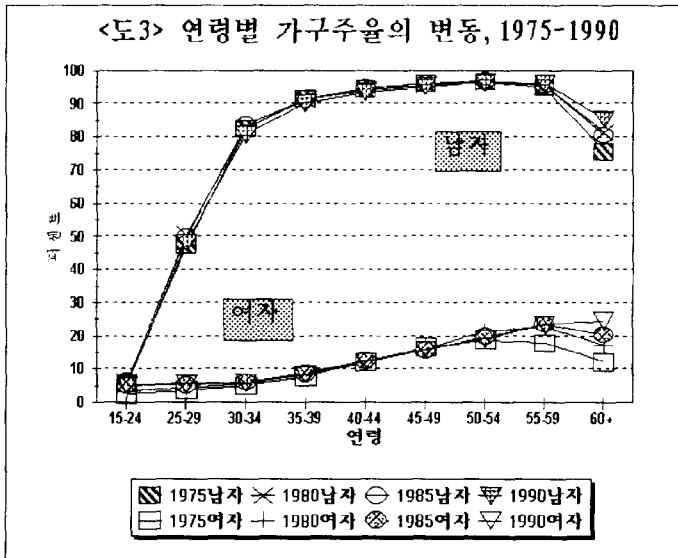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의 가구주율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여자 가구주율의 상승은 앞서 연령별 가구주의 구성비 변화와 합치되는 사실로서 우리 나라 가구수의 빠른 증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의 변동, 1975~1990

(단위 : %)

연령\연도	남 자				여 자			
	1975	1980	1985	1990	1975	1980	1985	1990
전체	54.6	55.7	57.8	59.8	7.8	9.3	10.4	11.0
15~24	5.5	6.0	6.2	5.2	2.4	3.6	5.2	4.9
25~29	47.2	50.4	49.7	48.1	3.7	4.3	5.2	5.6
30~34	82.4	82.4	83.4	80.7	5.0	5.8	6.0	5.8
35~39	91.3	91.1	91.3	90.0	7.7	8.4	8.7	8.4
40~44	94.2	94.0	94.7	93.4	12.2	11.8	12.4	12.1
45~49	95.9	95.5	96.1	95.2	16.5	16.2	15.6	15.8
50~54	96.5	96.3	96.7	96.3	18.6	21.1	19.7	19.1
55~59	94.7	95.5	95.5	96.0	17.9	22.8	23.4	23.2
60 +	75.5	81.4	80.5	85.3	12.2	17.1	20.3	24.5

자료: 통계청, 각 해당연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표 9>는 가구주의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수와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라는 두 개의 집계표를 가지고 계산한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표이다. 이 표에서 사별한 남자의 경우에 가구주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상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구주율이 모두다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계급별로 보더라도 가구주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가구주율의 전반적인 상승은 모든 혼인관계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미혼자의 가구주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유배우 가구주의 경우는 연령별로 증감의 기복이 약간 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별한 여자는 15~24세 연령층에서 기복을 보인데 반해 남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연령층이 대부분인 것을

<표 9>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의 변동, 1975~1990 (단위: %)

성\연령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1975	1980	1985	1990	1975	1980	1985	1990	1975	1980	1985	1990	1975	1980	1985	1990
남 자																
전체	89.3	90.2	91.4	92.0	53.6	61.5	57.4	67.1	51.0	55.3	62.3	68.0	6.2	6.5	8.1	9.4
15~24	51.3	58.0	66.9	71.3	60.9	44.4	35.7	40.4	19.4	17.5	16.6	23.9	4.0	4.1	4.5	4.0
25~29	75.1	78.8	82.5	84.7	70.0	54.1	51.5	56.9	36.3	34.4	36.3	39.0	16.1	16.2	18.2	21.1
30~34	87.2	87.3	89.4	89.1	74.3	64.6	63.4	65.1	44.8	45.1	49.7	52.1	23.3	24.7	29.0	31.2
35~39	92.6	92.7	93.3	92.5	70.0	71.8	72.0	74.5	52.0	56.0	61.2	64.2	27.2	28.8	37.2	39.9
40~44	95.1	94.9	95.7	94.6	74.3	80.3	78.9	81.9	56.7	62.3	70.0	73.6	27.1	31.3	44.3	45.2
45~49	96.7	96.2	96.9	96.1	79.1	83.9	84.2	86.4	61.1	66.9	73.4	78.9	28.5	31.4	49.2	47.5
50~54	97.4	97.2	97.4	97.0	78.6	83.5	83.6	87.5	60.1	67.0	72.5	79.9	26.8	32.3	51.8	47.1
55~59	96.1	96.7	96.4	96.9	73.6	79.4	78.4	83.9	57.9	65.9	72.2	78.5	28.5	31.3	50.6	45.7
60+	82.3	87.1	86.0	89.8	41.8	49.8	45.3	56.8	46.6	58.1	64.4	70.8	22.7	28.3	43.7	41.1
여 자																
전체	3.4	3.6	4.0	3.3	33.7	40.8	43.9	49.4	50.6	59.4	65.0	71.6	3.2	5.0	7.7	8.1
15~24	1.5	1.3	1.3	1.1	27.9	35.5	34.0	45.8	18.6	17.6	23.5	30.0	2.6	4.1	5.9	5.3
25~29	2.1	2.2	2.0	1.4	52.4	57.9	61.0	67.5	31.1	35.6	38.5	47.0	10.8	13.9	17.3	18.8
30~34	2.8	3.4	3.2	2.5	68.2	73.3	77.6	80.3	43.6	50.7	54.9	60.7	16.3	24.1	31.0	34.0
35~39	3.9	4.0	4.3	3.7	75.2	81.9	85.6	87.5	55.7	63.0	67.7	72.0	17.9	29.0	39.4	46.1
40~44	4.5	4.5	5.2	4.5	71.4	81.7	86.4	89.7	63.8	70.3	74.5	79.5	18.9	30.7	41.5	51.1
45~49	5.1	4.8	5.4	4.8	59.8	73.2	79.3	86.2	63.7	72.9	77.0	81.9	18.1	30.6	39.9	50.2
50~54	4.9	5.1	5.6	4.5	48.8	60.4	66.5	76.1	61.7	70.0	73.9	80.7	15.0	35.7	39.5	48.6
55~59	4.3	5.0	6.2	4.3	36.3	48.4	53.8	63.3	50.4	64.6	68.1	74.6	16.2	35.0	41.9	50.0
60+	3.6	4.4	6.4	4.5	16.2	22.8	27.7	34.9	31.0	41.9	54.9	62.5	9.1	28.3	37.6	44.7

자료: 통계청, 각 해당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알 수 있다. 이혼자의 경우, 남녀 모두 젊은 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인 상승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가구주 변화추세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가족의 해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제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가족원 특히 미혼의 젊은 가족이 '집'에 머물지 않고 이탈하는 이른바 탈가족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탈가족화의 현상과 함께 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독립성의 획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자가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혼을 하여도 본가나 친정에 합류하는 경우가 더욱 희귀해진 것 같다. 이혼자의 경우 남자의 가구주율보다 여자의 가구주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은 가구주가 아닌 남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여도 기왕의 가구내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나 다른 가구에 일시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여자는 똑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면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주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에도 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센서스 결과라는 것이 일정 시점의 상태(stock)를 나타내는 것이지 흐름(flow)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구나 가족의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라는 역동적인 측면을 그려내기는 힘들다. 최근의 센서스 보고서에는 가구형태와 처처, 가구주의 직업과 교육 등으로 집계한 상세한 표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고 신고자료와 같은 다른 자료와 관련시켜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을 조감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Ⅲ. 가구수의 추계

1. 장래 가구수추계의 의의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체가 장기 생산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때

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이 주택난의 해소는 국민경제 생활의 향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거의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가구수의 추계가 갖는 정책적인 효용성에 비해 정책결정담당자나 인구연구자들이 기울인 관심이 나 노력은 매우 미미하였던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장래가구수를 예측한 것은 1970년 한국은행에 의한 것인데, 수년간의 평균가구원수의 변동추세를 연장하여 장래의 평균가구원수를 구한 다음 이것으로 총인구를 나눠 가구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박병태 등(1984)이 1980년 한해의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을 구하여 이 가구주율이 지속될 것이라는 매우 단순한 가정아래 장래의 가구수를 추계한 것이 있다. 그리고 김남일(1988) 등이 UN의 가구주율법으로 가구수를 추계하였으나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본 작업은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고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UN의 가구주율법을 이용하되 고노(Kono)가 제안하여 일본에 적용한 것과 같이 가구주율법의 원리를 확장하여 가구규모 및 가구형태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였다.

2. 가구수추계 방법 및 본 연구의 제한점

UN의 가구주율법은 적절한 성별, 연령별 인구추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장래의 가구수와 가구구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법이 간편하고 필요로 하는 입력자료도 단순하다. 이 방법은 그 기본자료로 이용가능한 인구추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의 규모와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구조는 과거의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방법은 인구변동의 이 세가지 요소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가구의 생성, 성장, 축소, 해체라는 동적인 측면을 계산에 넣을 수 없을 뿐더러 현재 가구수의 저장(stock)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유량(flow)을 숫자로 제시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가구주율법에서는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가능하면 혼인상태별로) 분류하여 그 분류에 속하는 인구 중에 가구주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이 과거의 가구주율을 바탕으로 장래의 가구주율을 추정한 다음 이 추정된 가구주율에 추계인구를 곱하여 가구수를 각 성-연령 집단에서 구하여 가구구성을 살피기도 하고 전부 합산하여 전체가구수를 추계하기도 한다. 우선 가구주율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h(i,j,t) = \frac{H(i,j,t)}{P(i,j,t)}$$

여기서 h 는 가구주율을, H 는 가구주수를, P 는 인구를 나타내며, 첨자인 i, j, k 는 각각 성별, 연령, 연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성-연령 집단에서 가구수를 구하는 식은 누구나 위의 식에서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전체가구수는 각각의 성-연령집단별 가구수를 합하면 되고 그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um_i \sum_j H(i,j,t+x) = \sum_i \sum_j P(i,j,t+x) \cdot h(i,j,t+x)$$

위의 식에서 세번째 첨자 $t+x$ 는 x 년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x 년 후의 가구주율을 구할 때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정율법(constant rate method), 외삽법(extrapolation method), 회귀법(regression method),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으로 나뉜다. 이 중 정율법은 장래의 가구주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 시점의 가구주율 밖에 구할 수 없고 가구주율의 변화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이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외삽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성별, 연령별 그리고 혼인상태별 가구수와 인구수가 2개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 집계되었을 때 두 시점의 가구주율을 구하고 이 가구주율의 변화율을 연장시켜 장래의 가구주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중 UN이 권장하고 있는 지수함수법도 여기에 속한다. 지수함수에 맞춰(fit) m 년 후의 가구주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h(i,j,t+x) = 1 - [1 - h(i,j,t-n)] \cdot \left[\frac{1 - h(i,j,t)}{1 - h(i,j,t-n)} \right]^{[(t+m)-(t-n)]/n}$$

이 공식은 가구주율이 늘어날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줄어드는 경우 추계 기간이 길어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음수의 가구주율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함께 사용한다.

$$h(i,j,t+x) = h(i,j,t-n) \cdot \left[\frac{h(i,j,t)}{h(i,j,t-n)} \right]^{[(t+m)-(t-n)]/n}$$

가구주율법이라는 것이 특정계층 인구의 가구주비율을 일정한 함수에 맞춰 추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구주율 뿐만 아니라 다른 비율을 추정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착안한 것이 고노(Kono)의 확장가구주율법이다. 그는 장래의 가구주율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래의 각 규모별 가구의 구성비를 추정하고 가구주율법에 의하여 계산된 성별, 연령별 가구수에 각각의 규모별 구성비를 곱하여 각 성별, 연령별, 가구규모별 가구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의 이런 방법을 가구형태별, 혼인상태별 가구수를 구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작업에서는 혼인상태별 가구수와 가구규모별 가구수, 가구형태별 가구수를 추계하는 데 이용하기로 하였다.

각 혼인상태별로 가구주율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나라의 센서스 보고서가 상세하기는 하지만 혼인상태별로 가구주율을 이용하여 가구수를 추계하려면 혼인상태별 인구추계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인구추계는 그렇지 못하므로 각 성별, 연령별 계층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추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구주율을 추계할 때 두개 시점의 가구주율이 필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데, 이 두 개 시점이 반드시 최근의 시점과 다음으로 현재에 가까운 시점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 데는 가장 근접한 시점의 것을 사용해야겠지만 5년 이상 수십년 후의 것을 추정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인 변화의 추이가 반영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추계작업은 가장 최근의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였고 단기적인 가구추계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1985년과 1990년의 가구주율 변화를 사용하여 장래의 가구주율을 추계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센서스 자료에서 60세 이상으로 묶어진 노인가구수를 75세 전까지 5세 간격으로 세분하여 새로운 표를 작성하고 다

른 조사항목과 교차시켜 가면서 상세한 추계결과를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표본자료가 갖는 한계 때문에 시·도별, 가구형태별, 가구규모별, 혼인상태별 가구수를 추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로 보다 다양한 노인 가구형태별(경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노인여성 1인 가구나 비친족 노인가구 등)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센서스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형태(단독가구, 1세대가구, 부모비동거가구, 부모동거가구, 비혈연가구)만을 추정하는데 그쳤다.

셋째로 가구주율법은 일정시점의 가구수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일정기간 중에 몇 가구가 소멸 혹은 해체되는가, 새로 형성되는 가구는 얼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제시된 가구주율의 변화나 장래의 가구수는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지 전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면에 대한 차후의 연구는 가구변동의 동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장래의 가구주율과 가구수

먼저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의 장래 추계치를 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이 표는 최근 10년 혹은 15년의 가구주율 변화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장래의 가구주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먼저 남자의 경우 15~24세 연령층의 가구주율은 현재의 5.2%에서 2000년에 약 4%, 2010년에 약 3%, 2020년에는 약 2%로 감소하게 된다. 25~29세 연령층은 1990년의 48.1%에서 2000년에는 45%, 2010년에 42.2%, 2020년에 39.5%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서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여자의 경우는 25~29세 연령층,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특히 15~24세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은 남자보다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가구주율의 추계치는 과거 일정기간인 1985~1990년의 5년간의 변동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추계(가정)된 가구주율을 가지고 추계한 가구수이다.

<표 10> 장래의 가구주율, 1990~2020

성\연령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자	0.59800	0.61795	0.63661	0.65436	0.67124	0.68730	0.70257
15~24	0.05200	0.04322	0.03596	0.02992	0.02489	0.02071	0.01723
25~29	0.48100	0.46546	0.45036	0.43575	0.42161	0.40792	0.39469
30~34	0.80700	0.78156	0.75672	0.73268	0.70939	0.68685	0.66503
35~39	0.90000	0.88672	0.87391	0.86128	0.84883	0.83657	0.82448
40~44	0.93400	0.92025	0.90729	0.89452	0.88192	0.86950	0.85725
45~49	0.95200	0.94354	0.93486	0.92625	0.91773	0.90928	0.90091
50~54	0.96300	0.95897	0.95528	0.95161	0.94795	0.94431	0.94068
55~59	0.96000	0.96454	0.96872	0.97240	0.97565	0.97852	0.98105
60+	0.85300	0.88888	0.91608	0.91608	0.91608	0.91608	0.91608
여자	0.11000	0.11508	0.12028	0.12545	0.13059	0.13570	0.14078
15~24	0.04900	0.04591	0.04300	0.04028	0.03774	0.03535	0.03312
25~29	0.05600	0.06036	0.06458	0.06877	0.07294	0.07710	0.08123
30~34	0.05800	0.05549	0.05345	0.05149	0.04959	0.04777	0.04601
35~39	0.08400	0.08161	0.07892	0.07631	0.07380	0.07136	0.06901
40~44	0.12100	0.11688	0.11336	0.10994	0.10663	0.10342	0.10031
45~49	0.15800	0.15938	0.16088	0.16237	0.16386	0.16535	0.16683
50~54	0.19100	0.18491	0.17923	0.17373	0.16839	0.16322	0.15821
55~59	0.23200	0.22899	0.22632	0.22369	0.22108	0.21851	0.21597
60+	0.24500	0.28445	0.32204	0.35764	0.39138	0.42335	0.45363

이 작업에 적용된 추계인구로는 통계청에서 생산한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중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를, 2005년에서 2020년까지는 1991년에 발표한 바 있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의 장래 가구주율에 이 인구추계치를 곱하여 작성한 2020년까지의 성별 연령별 가구수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이 표는 우리 나라의 가구수는 1990년 현재 1,135만 2천 가구에서 2020년에는 무려 1,916만 9천 가구로 불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수의 격증은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가 쉽사리 완화되기 힘들다는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도 현재의 주택소유율을 64%로 잡고 이 수준을 유지하는데만 2020년까지 대충 500만호(=782만호x0.64)를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노후한 주택을 대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추가로 건설해야 할 주택수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표 11>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장래 가구수, 1990~2020

성\연령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계	11351750	12745280	14339532	15781824	17106669	18211319	19169285
남자	9566497	10687523	11938542	13015292	13943052	14618359	15054666
15~24	236995	186568	143568	109866	85163	71049	57787
25~29	1039557	1016515	1019318	875454	820515	690918	670332
30~34	1729704	1686254	1638574	1647081	1416503	1329198	1120286
35~39	1482931	1829321	1867191	1850476	1895476	1660331	1586649
40~44	1227587	1402697	1843884	1888459	1875711	1924407	1688142
45~49	1048461	1173882	1389575	1845310	1904293	1905148	1968172
50~54	957389	1026376	1143693	1370186	1836436	1909913	1925985
55~59	730407	921518	978335	1108426	1344748	1817294	1902854
60+	1113466	1444392	1914404	2320034	2764207	3310101	4134459
여자	1785253	2057757	2400990	2766532	3163617	3592960	4114619
15~24	209473	186459	160345	134734	115905	111430	103291
25~29	121957	124994	138389	129695	132258	115999	125189
30~34	118965	115538	110058	109785	93072	86206	68867
35~39	131057	162584	163203	156177	156488	133199	123846
40~44	147514	169231	223784	225501	216587	217759	185867
45~49	169872	191307	229803	316844	332497	332436	347732
50~54	193726	195510	211047	244015	323589	326231	313386
55~59	199677	226043	232338	256191	302499	409196	420565
60+	493012	686091	932023	1193590	1490722	1860504	2425876

가구주율의 전반적인 증가는 곧 가구의 증가속도가 인구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향후 30년간 우리 나라 평균가구원수를 가구수와 총인구와 함께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평균가구원수는 1990년 현재의 3.78명에서 2000년의 3.26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감소추세는 2020년까지 이어지고 평균가구원수가 2010년 이후에 3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평균가구원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가족생활에도 적잖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 주택문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소형주택의 비중을 높여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근거는 뒤에 살펴볼 가구원수별 가구수의 추계로 미루기로 한다.

<표 12> 평균가구원수의 장기전망, 1990~2020

구분\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인구(천명)	42,869	43,268	43,663	44,056	44,453	44,851	45,248	45,642
가구(천가구)	11,352	11,510	11,807	12,112	12,427	12,745	13,067	13,388
평균가구원수	3.78	3.76	3.70	3.64	3.58	3.52	3.46	3.41
구분\연도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인구(천명)	46,033	46,416	46,789	48,434	49,683	50,346	50,578	
가구(천가구)	13,708	14,028	14,340	15,782	17,107	18,211	19,169	
평균가구원수	3.36	3.31	3.26	3.07	2.90	2.76	2.64	

자료: 1) 1990~2000년 인구: 통계청(1994).
 2) 2005~2020년 인구: 통계청(1991).

4. 시도별 가구수의 추계

머지 않아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정책결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배분함에 있어서 지역별 정보와 자료가 꼭 있어야 한다. 이 예산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배분이나 지방정부의 예산할당에는 복지수요에 대한 지금보다는 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본 작업은 예상되는 이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각 시도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기로 하였다.

이 시도별 가구수의 추계에는 시도별 추계인구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추계인구는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시도별로 가구주율을 추계할 때, 광주와 대전이 1985년 이후에 직할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각각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 포함시켜 추계한 관계로 인구 역시 이 두지역에 합하여 가구수를 추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시·군부별 추계인구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시·군부별로 가구수 추계는 못하고 가구주율만 추계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으므로 추후 시·군부별 인구추계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부록에 제시된 가구주율을 적용하여 시·군부별 가구수를 구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시·도별 가구수의 변화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가구수의 증가라는 것이 거의 인구증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역별 인구는 인구이동의 결과인데, 이 인구이동이 사회경제적인 변화나 국가의 지역개발 정책에 매우 민감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업 결과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그 계산과정이 정확하다고 해도 시·도별 가구수의 합은 전국적으로 추계한 가구수와 일치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구수 보정을 하되, 단기간일 경우는 시·도별 가구수의 합을 전국 가구수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가구수 증가가 시·도별로도 상이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추계일 경우는 통상 불합리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작업에서는 전국의 성 및 연령별로 추계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성별·연령별 가구수를 조정하여, 전국의 성별·연령별로 추계한 가구와 시도별 성별·연령별로 추계한 가구의 합계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각 지역별 가구주율의 계산과 가구주율의 추계는 물론 전국치의 것과 동일한 실차를 밟아 이루어 졌다. <표 13>에 나타난 것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각 지역의 가구수 증가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경기도가 단연 두드러진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되었다.

경기도는 1990년의 161.9만 가구에서 2000년의 278.8만 가구로 늘어남으로써 구성비가 14.3%에서 19.4%로 늘어났다. 다음으로 가구수의 신장이 두드러진 곳은 인천으로 1990년의 48.5만에서 2000년의 80.1만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경남(28.3%)은 세번째로 우리 나라 전체 신장율인 26.3%보다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19.1%)과 서울(18.6%)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전국 신장율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와 인천지역이 전국 신장율의 2.5배 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과 경남·충남 지역의 가구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다. 강원도,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신장율이 10% 미만인 지역으로, 10년간 약 3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늘어났고 그 구성비도 0.2~0.8% 포인트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가구수 증가의 시·도별 차이는 주로 인구성장과 구조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13> 시·도별 장래의 가구수, 1991~2000

시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서울	2843717	2905016	2968211	3032989	3097495
부산	999141	1016624	1034121	1052023	1069705
대구	602030	614330	626843	639739	652479
인천	507060	535992	566320	598114	631053
경기	1696746	1800120	1909011	2022782	2140761
강원	408807	409286	409664	410125	410580
충북	355552	361185	366840	372630	378455
충남	744490	756923	769537	782520	795603
전북	514750	517958	520938	523928	526689
전남	907453	917879	927370	937304	946794
경북	790990	801706	811948	822070	831673
경남	1008349	1037517	1066932	1096718	1126204
제주	131218	132849	134368	136034	137789

시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서울	3149762	3199711	3247881	3293835	3339207
부산	1084522	1098199	1111090	1123793	1135629
대구	662987	673003	682774	692310	701224
인천	663131	696197	730343	765467	801309
경기	2260365	2384944	2515131	2649413	2788371
강원	412145	413383	414177	414601	418143
충북	386007	393495	400786	407901	413210
충남	812955	830182	847313	864567	881699
전북	531418	535601	539054	541993	545708
전남	960278	973182	985094	996800	1006475
경북	846320	860301	873149	884827	892190
경남	1157366	1188387	1219120	1249231	1272225
제주	139563	141203	142568	143623	144142

5. 가구의 형태별 규모별 구성비의 변화와 가구구조의 전망

가구형태별 가구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층 내의 가구규모별 장래의 분포를 알아야 한다. m 년 후 i 연령층에서 j 라는 형태의 가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P(i,j,t+m)$ 라고 할 때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P(i,j,t+m) = 1 - [1 - P(i,j,t-n)] \cdot \left[\frac{1 - P(i,j,t)}{1 - P(i,j,t-n)} \right]^{[(t+m)-(t-n)]/n}$$

여기서 n 은 두 자료 시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고 m 은 나중 자료 시점과 추계하려고 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위의 공식은 가구주율을 추계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수식이다. 여기서도 가구주율을 추계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공식을 사용하여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P(i,j,t+m) = P(i,j,t+m) \cdot \left[\frac{P(i,j,t)}{P(i,j,t-n)} \right]^{[(t+m)-(t-n)]/n}$$

추정하는 값이 구성비일 경우에는 모든 구성비를 합해서 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모든 형태의 가구가 차지하는 구성비의 합이 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구성비를 구하고 이를 합하면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추계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위수보다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불합리성은 이 방법을 제안한 고노(Kono)도 지적하지 않은 점이다.

본 추계작업에서는 각 규모별 구성비를 합하면 단위수가 되도록 비례배분을 반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구성비의 합과 단위수 1의 차이를 각 구성비의 크기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것을 반복하여 구성비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었다.

가구형태는 여리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는 노인가구와 이들에 대한 부양이 크게 문제되므로 이런 점을 감안한 가구의 분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노인의 부양에 초점을 맞춰 단독가구, 1세대가구, (편)부모를 부양하는 다세대가구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다세대가구, 비혈연가구로 재분류하였다. 또 센서스 보고서에는 60세 이상도 74세까지 5세 집단별로 나뉘었지만 가구주수의 추계가 60세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60세 이상을 묶었다.

이렇게 하여 각각의 가구형태의 구성비를 연령계급별로 추정하고 이 값에 이미 앞에서 추계한 연령별 가구주수를 곱하여 가구형태별 가구수를 구

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이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단독가구가 2000년에는 약 200만 가구로 1990년 약 102만의 거의 2배에 육박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1세대 가구도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그 수가 크게 늘기는 하지만 단독가구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부부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1세대가구의 수는 1990년에 122만 가구에서 2000년에는 194만 가구에 이르러 2배에 훨씬

<표 14> 가구형태별 장래 가구수, 1985~2000

가구형태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전체	9566350	11351750	11510303	11807385	12112103	12426976
단독가구	659749	1020269	1079552	1148788	1220369	1297443
1세대가구	913810	1218254	1266037	1326326	1390536	1461021
부모비동거	6343987	7436887	7507274	7576041	7845886	8012907
부모동거	1489553	1510249	1493709	1493601	1493793	1494428
비혈연가구	159251	166091	163731	162629	161519	161177
60세 이상						
전체	1217289	1606478	1684875	1782522	1887807	2002199
단독가구	172100	276684	300191	328029	358303	391405
1세대가구	222502	356350	386301	421760	460281	502358
부모비동거	496022	581269	594992	614251	634697	656666
부모동거	313746	377801	388829	403604	419312	436192
비혈연가구	12919	14374	14562	14878	15214	15578
가구형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	12745280	13066819	13387788	13708480	14028361	14339532
단독가구	1378969	1462970	1549043	1633880	1715623	1794138
1세대가구	1535556	1613711	1696430	1778434	1859142	1938548
부모비동거	8172969	8328997	8477588	8628702	8785329	8940088
부모동거	1496388	1499510	1502974	1506256	1508559	1509107
비혈연가구	161398	161631	161753	161208	159708	157651
60세 이상						
전체	2130483	2266039	2406724	2553710	2702208	2846427
단독가구	428422	468184	510320	555131	601611	648424
1세대가구	549372	599811	653191	709885	768600	827624
부모비동거	681519	706914	732089	757334	781190	802060
부모동거	455169	474704	494289	514124	533211	550440
비혈연가구	16001	16426	16835	17236	17596	17879

미치지 못한다. 소위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는 부모불부양 다세대가구(부모비동거)는 1990년의 약 744만 가구에서 2000년의 약 900만 가구로 이 기간 중에 약 156만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이 증가는 전체 가구수의 증가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치이다. 가구주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는 1990년의 151만 가구에서 1995년에는 150만, 2000년에는 151만으로 근소한 차이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절대치로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는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우리 나라 가족구조 및 부모부양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 단독가구주 중에 노인가구주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0년에는 단독가구주의 약 27%가 노인이었는데 비해 2000년에는 3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규모도 1990년에 27만을 약간 웃돌던 데서 2000년에는 두배가 훨씬 넘는 약 6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세대 가구일지라도 가구주가 노인일 경우 필시 노인들만으로 구성되는 노인가구이기 때문이다. 노인단독가구를 제외한 노인가구도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1990년에 약 36만 가량이던 노인 1세대 가구수는 2000년에 무려 83만 가구에 육박한다. 노인 단독가구와 합한다면 2000년에 147만을 넘어서고 우리 나라 전체가구의 약 1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노인가구에 속하는 노인인구도 대략 230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위 표의 60세 이상 노년층 가구주의 가구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는 부모를 모시는 가구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노년층 가구주 중에서는 오히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즉 1990년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가구주가 약 38만 명이었지만 10년 후인 2000년에는 약 55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추계의 결과다.

우리 나라 센서스 보고서에는 연령계급별로 가구주수를 정리한 표와 가구규모별로 가구주수를 정리한 표가 있다. 따라서 이 두개의 표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별 가구주수를 추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추계작업은 매우 단순하나 가구규모별 가구주수를 구하는 것에 그치고 각 가구형태별 가구주수를 알 수가 없다. 다행히 1985년부터 센서스 보고서에 가구형태별, 가구규모별 가구주수를 보여주는 표를 수록하고 있어 이것을 이용하여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규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추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1985년과 1990년의 가구규모별 구성비로부터 전체가구수를 구하고 1985년과 1990년의 가구형태별 가구규모별 가구수를 이용하여 장래의 가구형태별, 규모별 가구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전체로 추계한 가구수와 각 가구형태별로 나눠서 추계한 가구수의 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가구형태별 가구수의 추계는 다만 가구형태별로 가구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른 말로 하면 가구규모별로 가구구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피는 데에만 유용하다고 하겠으나 본 작업에서는 독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구규모별로 추계한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각 가구형태별로 나눠서 가구규모별로 추계한 가구수의 합이 전체 가구수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가구수를 보정하였다.

<표 15> 가구형태별 가구규모별 장래 가구수, 1990~2000

가구규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전체가구					
합계	11354540	11510303	11807385	12112103	12426976	12745280
1	1021481	1079552	1148788	1220369	1297443	1378969
2	1565713	1620116	1692586	1768509	1850179	1935498
3	2163272	2230907	2323859	2415182	2504270	2589923
4	3350728	3457294	3602007	3743014	3878989	4008370
5	2140073	2136525	2154948	2169610	2180335	2187335
6	671062	589309	524600	467756	417909	374134
7+	442211	396600	360597	327663	297851	271051
가구규모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가구					
합계	13066819	13387788	13708480	14028361	14339532	
1	1462970	1549043	1633880	1715623	1794138	
2	2023850	2115949	2207307	2297416	2386058	
3	2673031	2752599	2831352	2910174	2987051	
4	4132662	4250351	4366183	4481603	4593259	
5	2191486	2192279	2191380	2188943	2183709	
6	335788	302079	272319	245962	222368	
7+	247032	225488	206059	188640	172949	

가구원 1명인 가구나 단독가구는 동일한 것이므로 이곳에서 중복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먼저 2인 가구의 변화를 보면 1990년 현재 약 157만 가구에서 1995년에 약 194만 가구로, 2000년에는 약 239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를 제외한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17%를 거쳐 2000년에는 19%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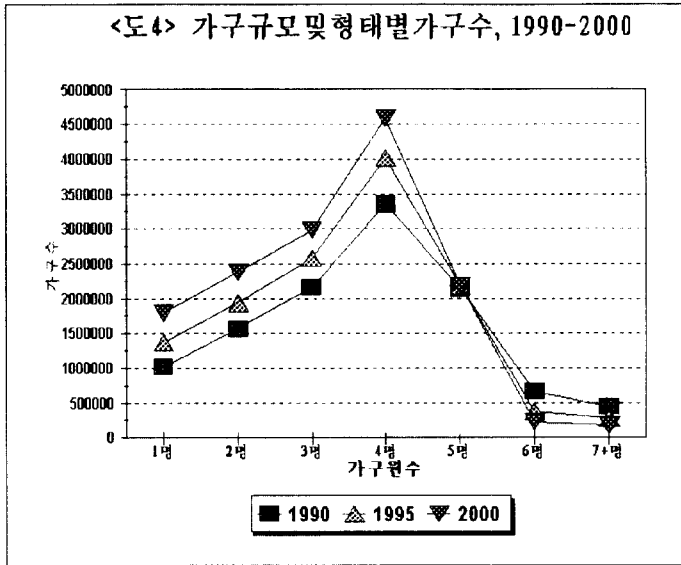
3인가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1990년 약 216만 가구 가량이던 것이 1995년에는 약 259만 가구로 2000년에는 약 300만 가구에 육박하게 되어 10년간 무려 84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 구성비도 21%에서 23%를 거쳐 24%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는 가장 전형적인 가족규모로 1990년에 약 335만이던 가구는 1995년에 약 401만으로, 2000년에는 약 459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 구성비도 32%에서 35%를 거쳐 2000년에는 37%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가구규모가 점점 더 4명으로 집중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해준다.

4명 이하의 소규모 가구가 전체가구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가구는 점점 그 비중이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5인 가구는 1990년 현재 약 214만 가구에서 1995년에 약 219만 가구로, 2000년에는 약 218만 가구로 늘어났다가 다소 줄어들고 그 구성비도 1990년의 21%에서 1995년의 19%로 2000년에는 17%로 낮아지는 형세다.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경우는 구성비는 물론이려니와 그 절대수마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 같다. 특히 6인 가구의 수는 1990년에 약 67만 가구에 이르렀는데 1995년에는 38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0년에는 22만 가구로 격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인 이상의 가구도 6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경로를 걷게 될 것이지만 그 감소속도가 약간 완만하여 2000년에는 이 두가지 가구수의 차이가 불과 약 5만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4인 가구가 지배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지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규모별 가구수 분포가 점점 좌측으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 IV> 참조). 가구원수 즉 가구규모는 혈연가구의 경우 가족관계를 틀지우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구형태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5인 가구라 할지라도 2세대인 경우는 3세대인 경우와 판이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먼저 2인 가구의 경우를 보면 그 대부분이 부부가구인 1세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점에서 가구형태의 변화를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의 <표 15>는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가구규모별로 가구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절대수자 보다는 구성비이므로 퍼센트 분포를 계산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이 표에서 2인 가구 중에 1세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 2인 1세대가구는 대부분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으로 1990년의 69%에서 1995년에 72%, 2000년에는 75%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된 부모와 자녀 한 명이 동거하는 가구수는 1990년 현재의 25%에서 1995년의 24%를 거쳐 2000년의 22%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두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는 꾸준히 줄어들어 그 구성비가 10년 동안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16> 가구규모별 가구형태별 장래 가구의 분포, 1990~2000 (단위: %)

가구형태	1990	1995	2000
		2인 가구	
1세대가구	68.60	71.90	75.14
부모비동거	25.38	23.60	21.47
비혈연가구	6.02	4.50	3.39
		3인 가구	
1세대가구	4.36	3.53	2.97
부모비동거	89.02	90.16	90.96
부모동거	5.01	5.13	5.17
비혈연가구	1.61	1.18	0.90
		4인 가구	
1세대가구	0.93	0.73	0.59
부모비동거	91.42	91.81	92.08
부모동거	7.08	6.99	6.91
비혈연가구	0.57	0.47	0.42
		5인 가구	
1세대가구	0.62	0.67	0.75
부모비동거	73.71	68.32	63.74
부모동거	24.82	29.88	34.10
비혈연가구	0.85	1.13	1.41
		6인 가구	
1세대가구	0.46	0.40	0.32
부모비동거	50.47	37.29	25.41
부모동거	49.07	62.31	74.27
		7인 가구	
1세대가구	0.82	2.72	7.43
부모비동거	30.39	24.69	18.92
부모동거	68.79	72.59	73.65

3인 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백분비가 1990년의 약 89%에서 1995년에는 약 90%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91% 가량이 되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를 부양하는 다세대가구의 비중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1990년의 5%에서 2000년의 5.2%로 불과 0.2% 포인트 차이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므로써 2인 가

구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면에서 가장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4인 가구의 경우를 보면 부모를 모시지 않는 다세대가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0년간 약 1% 가량 밖에 커지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4인 가구중에서 형제자매가 동거하는 경우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고 또 그 구성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모부양(동거) 4인 가구의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다.

5인 가구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비중이 1990년의 4분지 1에서 2000년의 3분지 1로 크게 신장되리라는 것이 두드러진 추계결과 중 하나이다. 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5인 가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같은 기간 중에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1세대가구와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이채롭다. 그러나 5인 가구의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비중의 증가가 곧 가구수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6인 가구 안에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다세대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반면 부모를 모시는 가구의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되지만 6인 가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가구수의 절대치 증가는 없다. 이 점은 7인 가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구규모의 집중화 경향만이 아니라 동일규모의 가구 안에서도 일정 형태의 가구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것은 5인 가구의 경우인데 부모를 모시지 않는 가구에 대한 부모를 모시는 가구의 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2인 가구에서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로 이뤄지는 가구와 형제와 자매로 구성되는 가구가, 3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는 가구주(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가, 6인 가구와 7인 가구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다세대가구가 전형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규모는 자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기보다는 가구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평균가구원수는 거의 가구형태별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가구규모가 줄어든 것은 출산자녀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대가구가 쪼개져서 소가구가 되고 가족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독자적으로 단독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분화와 탈가족화 현상은 우리 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밟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겪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가구의 분화나 탈가족화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가구분화나 탈가족화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또 가구원의 이탈은 대부분 재합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족적인 유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앞으로는 가구의 분화는 재합류를 전제하지 않는 의도적이고 영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추론은 가구규모 분포의 가구주 연령별 자료가 입수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표가 센서스 보고서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기초로 장래의 가구규모별 가구수를 가구주의 연령별로 추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책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작업의 이러한 약점을 약간이라도 보완해보자는 뜻에서 혼인상태별 가구수의 추계를 시도하였다.

6.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전망

1975년 이후의 센서스 보고서에는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수가 수록되어 있어 장래의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어렵지 않게 계산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가구수를 추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작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혼인상태별로 인구를 추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자료의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이 아니라 장래의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의 추계는 장래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를 추계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먼저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각 연령계급별로 계산한 후 이미 추계된 연령계급별 가구수와 곱하여 혼인상태별 가구수를 추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혼인상태의 분포 역시 각 구성비를 합하면 1이 되어야 하므로 위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수치를 조정하였다.

혼인상태별 가구주수는 <표 11>에서 계산된 성별 연령별 가구수에 해당 연령 계층의 혼인상태 구성비를 곱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 결과 중 1990년 이후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수치만을 뽑아 만든 것이 다음의 <표 17>이다.

<표 17>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장래 가구주수, 1990~2000

연령\ 혼인상태	남자			여자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5~24	236995	186568	143568	209473	186459	160345
유배우	59159	38907	25011	4482	2395	1237
사별	82	51	31	292	233	180
이혼	160	156	144	323	300	269
미혼	177594	147454	118382	204376	183531	158659
25~29	1039557	1016515	1019318	121957	124994	138389
유배우	775644	696682	641677	23934	15049	10206
사별	704	614	549	3814	3053	2636
이혼	1944	2155	2415	3822	4111	4756
미혼	261265	317064	374677	90387	102781	120791
30~34	1729704	1686254	1638574	118965	115538	110058
유배우	1624865	1547819	1469595	48257	37444	28322
사별	3155	3104	3044	18409	16003	13562
이혼	8595	8930	10959	14998	16750	17837
미혼	93089	125501	154976	37301	45341	50337
35~39	1482931	1829321	1867191	131057	162584	163203
유배우	1435741	1753623	1772168	52821	56850	49268
사별	6748	9618	10932	39422	43519	38684
이혼	15444	24631	30815	21740	32351	37400
미혼	24998	41549	53276	17074	29864	37851
40~44	1227587	1402697	1843884	147514	169231	223784
유배우	1189467	1346017	1751387	49504	50578	59413
사별	11936	16621	26611	70126	76353	95581
이혼	17535	27270	45273	21099	30862	49023
미혼	8649	12789	20613	6785	11438	19767
45~49	1048461	1173882	1389575	169872	191307	229803
유배우	1012723	1121601	1313242	44228	43493	45485
사별	17448	23860	33342	105704	118253	140690
이혼	14042	22655	34974	16576	24064	35030
미혼	4248	5766	8017	3364	5497	8598
50~54	957389	1026376	1143693	193726	195510	211047
유배우	921821	979095	1080862	36102	30673	27778
사별	24621	31522	40805	145038	148199	161233
이혼	8798	13395	19323	10708	13868	18127
미혼	2149	2364	2703	1878	2770	3909
55~59	730407	921518	978335	199677	226043	232338
유배우	697232	872537	918782	25399	21312	16179
사별	27458	39872	47846	167132	194277	203076
이혼	4622	7917	10613	5996	8598	10623
미혼	1095	1192	1094	1150	1856	2460
60+	1113466*	1444392	1914404	493012**	686091	932023
유배우	1011303	1290048	1681207	31018	24434	18770
사별	97731	147800	223286	455934	652069	898582
이혼	3372	5555	8925	4471	7025	10616
미혼	1013	989	986	1534	2563	4055

주: * 미상 47가구 포함
 ** 미상 55가구 포함

우선 전체적으로 혼인상태별 가구주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유배우 남자 가구주수가 1990년에 872.8만에서 1995년의 964.6만을 거쳐 2000년에 1065.4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남자 가구주수는 1990년에 약 20만에서 1995년의 27.3만을 거쳐 2000년에 38.6만으로 10년간에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사별가구주의 대부분이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년문제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혼한 남자 가구주수 역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미혼 가구주수는 1990~2000년간에 1.3배 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취업이나 취학때문에 독립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므로 사회복지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별 가구주나 노년 가구주들의 증가처럼 위협적이지는 않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별 가구주의 수가 10년간에 1.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1990년에 100.6만에서 1995년에 125.2만으로, 다시 2000년에는 약 155만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혼한 가구주수가 1990년 현재 10만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에 그쳤지만 2000년에는 18만을 넘어서게 되어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혼 가구주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눈에 띈다.

이 표에서 저연령층의 사별 가구주나 이혼 가구주는 그 자체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추계한 장래의 가구주수는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사망력의 개선으로 사별 가구주수가 남·여 모두 계속 줄고 반대로 이혼 가구주수는 늘어나리라는 전반적인 경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 가구주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주로 30세 이상의 중간 연령층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노년가구이다. 60세 이상 연령층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는 남자와 여자가 판이하다. 즉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사별한 가구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배우 남자 가구주수는 1990년에 101만 가량이었는데 1995년에는 129만 가량 될 것이고, 2000년에는 약 170만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홀로된 남자 가구주도 절대수는 크지 않지만 유배우 가구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 되었다(1990~2000년간에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자의 유배우 가구주율은 지금까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자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의 3.1만에서 1995년에 2.4만으로, 다시 2000년에는 약 1.9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었다. 사별 가구주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에 45.6만 가량이던 사별 가구주수는 1995년의 65.2만을 거쳐 2000년에는 약 89.9만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의 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1990년도 60세 이상 남자인구는 1,304,632명인데 이 중 가구주는 1,113,466명이다. 따라서 가구주가 아닌 60세 이상 남자의 인구는 191,166명이다. 여기에서 유배우 여자수인 31,018명을 빼면 결국 160,148명이 비가구주로서 가구주의 부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계산에는 물론 가구주는 비가구주의 부양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과 모든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 혹은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노인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지만, 이 숫자를 연도별로 비교해 본다면 흥미로운 경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과 1995년 그리고 2000년의 노인가구에 대하여 위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면 다음 <표 18>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8> 60세 이상 노인의 비가구주율의 장래추정, 1990~2000

구분\년도	1990	1995	2000
		남 자	
노년인구	1304632	1624949	2089768
노인가구주	1113466	1444392	1914404
유배우노인가구주	1011303	1290048	1681207
비가구주 노인	160148	156123	156594
		여 자	
노년인구	1995320	2411952	2894156
노인가구주	493012	686091	932023
유배우노인가구주	31018	24434	18770
비가구주 노인	491005	435813	280926
		전 체	
노년인구(1)	3299952	4036901	4983924
비가구주 노인(2)	651153	591936	437520
비가구주율(2/1)	0.197322	0.146631	0.087786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녀 혹은 배우자 이외의 가구원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이 1990년에 65만에 이르던 것이 1995년에는 59만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2000년에 약 44만으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로 따진다면 20%에서 15%로, 다시 9%로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 전망은 이런 노인들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성의 남녀를 불구하고 노인 가구주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 긴급성을 더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1960년 이후 30년간 우리 나라의 인구가 1.7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총가구수는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가구원수가 5.6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들었다. 30년간 우리 나라 가구의 규모축소와 구조변화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가 가구의 탈가족화 현상이다. 이 탈가족화는 미혼의 자녀가 부모를 떠나 단독으로 혹은 다른 가족원과 함께 가구를 형성하면서도 본가와 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단순한 가족의 거주지 분리라는 형태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족이 더이상 젊은 가족원을 묶어두지 못하여 가족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본가에 다시 합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후자는 그런 전제 없이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로 본다면 가구규모를 축소시키고 가구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이 탈가족화 현상은 가족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인구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인구이동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사회전반적인 변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은 도시가구의 규모축소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농촌가구의 규모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도시·농촌간 가구규모상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로 가구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출산력의 감소를 비롯한 인구동태율의 변동이다. 1960년대 우리 나라 부인의 평균자녀수가 5명대에서 현재의 2명대로 떨어진 것만 보아도 출산력의 감소가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평균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력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구규모의 축소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미혼상태의 연장 자체가 가구원 증가의 지연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 나라의 가구주율은 1960년 이후로 모든 연령층에서 꾸준히 감소되어 온 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젊은 연령층의 탈가족현상과 출산력 저하에 의한 소가족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가구주율의 증가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별로는 미혼의 젊은 연령층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구주율이 지금까지의 추세로 변화한다면 우리 나라의 가구수는 1990년 현재의 1,135.2만 가구에서 1995년에 1,274.5만 가구로, 2000년에는 약 1,444만 가구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 나라 인구성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보는 2020년에는 1,916.9만 가구로 2,000만 가구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가구수는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가구원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1990년 현재의 3.78명이 2000년에는 3.26명으로 줄고 2010년에는 2.90명, 2020년에는 2.64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 시·도별 추계작업의 결과는 각 지역의 가구수 증가율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도가 단연 두드러진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되었다. 경기도는 1990년의 161.9만 가구에서 2000년의 278.8만 가구로 늘어남으로써 구성비가 14.3%에서 19.4%로 늘어났다. 다음으로 가구수의 신장이 두드러진 곳은 인천으로 1990년의 48.5만에서 2000년의 80.1만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경남(28.3%)은 세번째로 우리 나라 전체 신장율인 26.3%보다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19.1%)과 서울(18.6%)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전국 신장율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와 인천지역이 전국 신장율의 2.5배 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과 경남·충남 지역의 가구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다. 강원도,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신장율이 10% 미만인 지역으로, 10년간 약 3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늘어났고 그 구성비도 0.2~0.8% 포인트가 감소되었다.

장래의 우리 나라 가구변동에서 움직일 수 없는 뚜렷한 전망 중의 하나가 노인가구의 증가이다. 노인가구는 대부분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떠나간 소위 “빈 둥지(empty nest)” 가구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노인으로서 가구주이거나 노인 가구주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부양을 받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정부가 앞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정책을 지향한다면 빠뜨릴 수 없는 취약계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노인가구 중에 여자가 가구주인 가구 즉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혹은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이 가구주가 아니면서 배우자가 가구주가 아니라면 심중팔구는 주로 자녀의 부양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인들의 수가 1990~1995년간 65만에서 59만으로 줄어들고 2000년에는 44만으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로 따진다면 20%에서 15%, 다시 9%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것은 노인부양을 자녀를 위시한 가족에게만 일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가구형태별로 추계한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소위 단독가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1990년에 100만 가량이던 것이 1995년에는 약 140만 가구로, 2000년에는 180만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형제자매와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가구의 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다. 1990년에 122만 가량이던 이 형태의 가구수는 1995년에 154만으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194만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가구주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다세대가구의 수는 1990년의 744만에서 1995년에는 817만으로, 2000년에는 약 89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직계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모부양 다세대가구주의 수는 1990년에 151만이었는 데 1995년에는 150만으로 전망되었고, 2000년에 151만으로 근소한 차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절대치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비혈연가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인복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단독 가구이다. 본 추계작업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가구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0년에 27.7만 가량이던 이 종류의 가구수가 1995년에 42.8만이 되고 2000년에는 무려 64.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노인들만 같이 사는 1세대가구나 부모를 모시지 않는 가구의 수도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전체가구수의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식의 부모부양 노인가구주는 전체 노인가구증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증가되는 가구수는 31~32만 가구로서 현재의 주택보유율인 64%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주택을 매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80%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주택건설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구의 규모가 감소하고 '단독가구'나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주택의 건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부양을 받는 노인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들만 같이 사는 '1세대가구' 및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부모부양 노인가구'나 '노인여자가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정부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통적 가족제도에 초점을 둔 한국형 노인복지 모형의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 _____ (1990),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 권태환 외(1993), 「한국의 가구 및 가족유형」, 『1990 인구주택총조사 종합 분석(4-3)』, 통계청.
- 김남일(1988), 『우리 나라의 지역별 인구 및 가구추계』(미간행).
- 박병태, 문현상(1981), 『전국가구 및 결혼수 추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최봉호(1990), 「우리 나라 가족 및 가구구조의 변동」, 『우리 나라 인구 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57~91.
- 통계청(1991), 『장래인구추계(1990~2021)』.
- _____ (1992a),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_____ (1992b), 1990 『인구주택총조사-최종전수집계결과』.
- _____ (1993), 『1991년 생명표』.
- _____ (1994), 『1960~2000 시도별 추계인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6), 『한국의 가족구조의 변화』.

_____ (1989),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우리 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Andrew Mason, Naohiro Ogawa, and Takehiro Fukui(1992),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1985~2025: A Transition Model of Headship Rates*, Japan Statistical Association,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and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 Center.

Bongaarts, J.(1983), "The formal demography of families and Households: An overview," *IUSSP Newsletter*, No.17.

_____ and T. K. Burch(1987), *Family Demography-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Beresford, J. C. and A. H. Rivlin(1966), "Privacy, Poverty and Old Age," *Demography* 3: 247~58.

Burch, T. K.(1970), "Some Demographic Determinants of Average Household Size: An Analytic Approach," *Demography* 7: 61~70.

_____ (1979), Household and family demography: A bibliographic essay, *Population Index* 43(2).

Kobrin, F. E.(1976), "The Fall in Household Size and the Rise of the Primary Individual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3: 127~38.

Carliner, G.(1975), "Determinant of Household Head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28~38.

De Vos, S. and A. Palloni(1989), "Formal Model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Kinship and Household Organization," *Population Index* 50(2): 174~95.

Kono, S.(1987), "The Headship Rate Method for Projecting Households," *Family Demography-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J. Bongaarts, T. K. Burch and K. W. Wachter, Pp.287~308.

Pitkin, J. R. and G. Masnick(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Heads and Non-Heads in the Household Population: An Extension of

the Headship Rate Method," *Family Demography-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J. Bongaarts, T. K. Burch and K. W. Wachter, Pp.309~26.

United Nations, Statistical Office(1979),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1970 Population Censuses*.

_____,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1973), *Methods of Projecting Households and Families(Manuals on methods estimating population MANUAL VII)*.

United Nations(1958), *Multilingual Demographic Dictionary, English Section*.

Yi, Z.(1986), "Changes in Family Structure in China: A Simulation Stud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4): 675~703.

山口喜一 編著(1990), 『人口推計入門』, 古今書院.

日本總理府統計局(1984), 『我が國の世帯構成とその變動』.

<부표 1> 장래의 가구주율, 1991~2020: 전국

성\연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자	0.60234	0.60630	0.61023	0.61411	0.61795	0.62176	0.62553
15~24	0.05008	0.04827	0.04653	0.04484	0.04322	0.04166	0.04016
25~29	0.47791	0.47477	0.47165	0.46854	0.46546	0.46240	0.45936
30~34	0.80201	0.79685	0.79172	0.78662	0.78156	0.77653	0.77153
35~39	0.89711	0.89450	0.89190	0.88931	0.88672	0.88414	0.88157
40~44	0.93075	0.92812	0.92549	0.92287	0.92025	0.91765	0.91505
45~49	0.95055	0.94879	0.94704	0.94529	0.94354	0.94180	0.94006
50~54	0.96193	0.96119	0.96045	0.95971	0.95897	0.95823	0.95749
55~59	0.96080	0.96177	0.96272	0.96364	0.96454	0.96542	0.96628
60+	0.86090	0.86850	0.87568	0.88247	0.88888	0.89495	0.90069
여자	0.11089	0.11194	0.11299	0.11403	0.11508	0.11612	0.11716
15~24	0.04837	0.04774	0.04712	0.04651	0.04591	0.04531	0.04472
25~29	0.05698	0.05783	0.05867	0.05952	0.06036	0.06121	0.06205
30~34	0.05718	0.05676	0.05633	0.05591	0.05549	0.05508	0.05467
35~39	0.08383	0.08327	0.08271	0.08216	0.08161	0.08106	0.08052
40~44	0.11977	0.11904	0.11832	0.11760	0.11688	0.11617	0.11546
45~49	0.15818	0.15848	0.15878	0.15908	0.15938	0.15968	0.15998
50~54	0.18958	0.18840	0.18723	0.18607	0.18491	0.18376	0.18262
55~59	0.23114	0.23060	0.23006	0.22952	0.22899	0.22845	0.22792
60+	0.25289	0.26091	0.26885	0.27669	0.28445	0.29213	0.29973
성\연령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자	0.62926	0.63296	0.63661	0.65436	0.67124	0.68730	0.70257
15~24	0.03871	0.03731	0.03596	0.02992	0.02489	0.02071	0.01723
25~29	0.45634	0.45334	0.45036	0.43575	0.42161	0.40792	0.39469
30~34	0.76656	0.76162	0.75672	0.73268	0.70939	0.68685	0.66503
35~39	0.87901	0.87646	0.87391	0.86128	0.84883	0.83657	0.82448
40~44	0.91245	0.90987	0.90729	0.89452	0.88192	0.86950	0.85725
45~49	0.93832	0.93659	0.93486	0.92625	0.91773	0.90928	0.90091
50~54	0.95676	0.95602	0.95528	0.95161	0.94795	0.94431	0.94068
55~59	0.96711	0.96792	0.96872	0.97240	0.97565	0.97852	0.98105
60+	0.90611	0.91124	0.91608	0.91608	0.91608	0.91608	0.91608
여자	0.11820	0.11924	0.12028	0.12545	0.13059	0.13570	0.14078
15~24	0.04414	0.04357	0.04300	0.04028	0.03774	0.03535	0.03312
25~29	0.06289	0.06374	0.06458	0.06877	0.07294	0.07710	0.08123
30~34	0.05426	0.05386	0.05345	0.05149	0.04959	0.04777	0.04601
35~39	0.07998	0.07945	0.07892	0.07631	0.07380	0.07136	0.06901
40~44	0.11475	0.11405	0.11336	0.10994	0.10663	0.10342	0.10031
45~49	0.16028	0.16058	0.16088	0.16237	0.16386	0.16535	0.16683
50~54	0.18148	0.18035	0.17923	0.17373	0.16839	0.16322	0.15821
55~59	0.22738	0.22685	0.22632	0.22369	0.22108	0.21851	0.21597
60+	0.30725	0.31468	0.32204	0.35764	0.39138	0.42335	0.45363

<부표 2> 장래의 가구주율, 1991~2000: 시부

성\연령	1991	1992	1993	1994	1995
남자	0.61500	0.61998	0.62490	0.62976	0.63455
15~24	0.05887	0.05672	0.05465	0.05266	0.05074
25~29	0.51764	0.51668	0.51572	0.51476	0.51381
30~34	0.83466	0.83118	0.82772	0.82427	0.82083
35~39	0.92010	0.91885	0.91760	0.91635	0.91511
40~44	0.94714	0.94581	0.94448	0.94314	0.94181
45~49	0.96168	0.96101	0.96034	0.95967	0.95900
50~54	0.96782	0.96781	0.96780	0.96779	0.96778
55~59	0.95884	0.96005	0.96122	0.96236	0.96346
60+	0.83105	0.83543	0.83970	0.84386	0.84791
여자	0.10753	0.10728	0.10703	0.10678	0.10654
15~24	0.05610	0.05493	0.05378	0.05266	0.05155
25~29	0.06266	0.06307	0.06348	0.06389	0.06430
30~34	0.06169	0.06085	0.06001	0.05919	0.05838
35~39	0.08956	0.08852	0.08749	0.08647	0.08546
40~44	0.12643	0.12432	0.12225	0.12021	0.11821
45~49	0.17027	0.16822	0.16620	0.16420	0.16223
50~54	0.20608	0.20181	0.19762	0.19353	0.18952
55~59	0.24569	0.24204	0.23845	0.23491	0.23142
60+	0.23540	0.23908	0.24274	0.24639	0.25002
성\연령	1996	1997	1998	1999	2000
남자	0.63929	0.64396	0.64857	0.65312	0.65761
15~24	0.04888	0.04710	0.04538	0.04372	0.04213
25~29	0.51286	0.51190	0.51095	0.51000	0.50906
30~34	0.81741	0.81400	0.81061	0.80723	0.80386
35~39	0.91386	0.91262	0.91138	0.91014	0.90890
40~44	0.94049	0.93916	0.93784	0.93651	0.93519
45~49	0.95833	0.95766	0.95700	0.95633	0.95566
50~54	0.96777	0.96777	0.96776	0.96775	0.96774
55~59	0.96454	0.96558	0.96659	0.96757	0.96852
60+	0.85185	0.85570	0.85944	0.86308	0.86664
여자	0.10629	0.10604	0.10580	0.10555	0.10531
15~24	0.05047	0.04942	0.04838	0.04737	0.04638
25~29	0.06471	0.06512	0.06553	0.06594	0.06635
30~34	0.05757	0.05679	0.05601	0.05524	0.05448
35~39	0.08446	0.08348	0.08251	0.08155	0.08060
40~44	0.11623	0.11430	0.11239	0.11052	0.10868
45~49	0.16027	0.15835	0.15644	0.15456	0.15270
50~54	0.18559	0.18175	0.17798	0.17429	0.17068
55~59	0.22798	0.22460	0.22127	0.21798	0.21474
60+	0.25363	0.25722	0.26079	0.26435	0.26789

<부표 3> 장래의 가구주율, 1991~2000: 군부

성\연령	1991	1992	1993	1994	1995
남자	0.56610	0.56600	0.56591	0.56581	0.56572
15~24	0.02493	0.02289	0.02102	0.01930	0.01772
25~29	0.31842	0.30303	0.28839	0.27445	0.26119
30~34	0.66182	0.64465	0.62793	0.61164	0.59577
35~39	0.80256	0.79088	0.77937	0.76802	0.75684
40~44	0.87019	0.86090	0.85171	0.84262	0.83362
45~49	0.91751	0.91162	0.90576	0.89993	0.89415
50~54	0.94993	0.94752	0.94512	0.94272	0.94033
55~59	0.96412	0.96500	0.96586	0.96670	0.96752
60+	0.89312	0.90310	0.91215	0.92036	0.92780
여자	0.11964	0.12355	0.12744	0.13131	0.13516
15~24	0.01867	0.01812	0.01758	0.01706	0.01656
25~29	0.02823	0.02829	0.02836	0.02843	0.02850
30~34	0.03531	0.03454	0.03379	0.03306	0.03235
35~39	0.05837	0.05740	0.05645	0.05551	0.05459
40~44	0.09209	0.09182	0.09154	0.09127	0.09100
45~49	0.12405	0.12504	0.12602	0.12701	0.12800
50~54	0.15727	0.15769	0.15812	0.15854	0.15896
55~59	0.20845	0.21012	0.21179	0.21346	0.21512
60+	0.27436	0.28701	0.29945	0.31167	0.32368
성\연령	1996	1997	1998	1999	2000
남자	0.56562	0.56553	0.56543	0.56534	0.56524
15~24	0.01627	0.01493	0.01371	0.01259	0.01156
25~29	0.24857	0.23655	0.22512	0.21424	0.20389
30~34	0.58032	0.56527	0.55060	0.53632	0.52241
35~39	0.74583	0.73497	0.72427	0.71373	0.70334
40~44	0.82472	0.81592	0.80721	0.79859	0.79006
45~49	0.88840	0.88269	0.87702	0.87138	0.86578
50~54	0.93794	0.93556	0.93319	0.93082	0.92846
55~59	0.96832	0.96910	0.96986	0.97060	0.97132
60+	0.93454	0.94066	0.94620	0.95123	0.95578
여자	0.13900	0.14282	0.14663	0.15041	0.15418
15~24	0.01607	0.01559	0.01513	0.01468	0.01425
25~29	0.02857	0.02864	0.02870	0.02877	0.02884
30~34	0.03164	0.03096	0.03029	0.02963	0.02899
35~39	0.05369	0.05280	0.05192	0.05106	0.05021
40~44	0.09073	0.09045	0.09018	0.08992	0.08965
45~49	0.12898	0.12997	0.13095	0.13193	0.13291
50~54	0.15939	0.15981	0.16023	0.16066	0.16108
55~59	0.21678	0.21844	0.22009	0.22174	0.22339
60+	0.33547	0.34707	0.35846	0.36965	0.38064

<부표 4> 성별 연령별 장래 가구수, 1991~2020: 전국

성\연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자	9692578	9933361	10180724	10434441	10687523	10941695	11193568
15~24	224584	215117	204973	195247	186568	178406	170395
25~29	1020808	997965	985724	995994	1016515	1034947	1050715
30~34	1720540	1747163	1754858	1731276	1686254	1641525	1605740
35~39	1504533	1592237	1694060	1781844	1829321	1874326	1911253
40~44	1222991	1243099	1258786	1303231	1402697	1510894	1600547
45~49	1061685	1066469	1092811	1134025	1173882	1200141	1222754
50~54	1003937	1031936	1038680	1031311	1026376	1022711	1030453
55~59	771726	817813	863729	901405	921518	944922	974661
60+	1161774	1221562	1287103	1360108	1444392	1533823	1627050
여자	1817725	1874024	1931379	1992535	2057757	2125124	2194220
15~24	204426	200302	195402	190637	186459	182305	178005
25~29	117106	116896	117458	120505	124994	129710	134372
30~34	117794	119395	119971	118497	115538	112494	109831
35~39	133346	141553	150806	158690	162584	165765	168182
40~44	149513	151461	152618	157255	169231	182872	194311
45~49	169168	170860	176387	184000	191307	196295	200519
50~54	197670	201436	201667	199036	195510	192419	192869
55~59	205601	211161	216366	221824	226043	231048	236457
60+	523101	560960	600704	642091	686091	732216	779674
성\연령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자	11445649	11697137	11938542	13015292	13943052	14618359	15054666
15~24	161756	152431	143568	109866	85163	71049	57787
25~29	1055667	1044013	1019318	875454	820515	690918	670332
30~34	1586996	1604524	1638574	1647081	1416503	1329198	1120286
35~39	1927598	1909408	1867191	1850476	1895476	1660331	1586649
40~44	1704449	1794374	1843884	1888459	1875711	1924407	1688142
45~49	1241068	1287924	1389575	1845310	1904293	1905148	1968172
50~54	1059055	1102044	1143693	1370186	1836436	1909913	1925985
55~59	984086	980071	978335	1108426	1344748	1817294	1902854
60+	1724974	1822348	1914404	2320034	2764207	3310101	4134459
여자	2262831	2331224	2400990	2766532	3163617	3592960	4114619
15~24	172871	166546	160345	134734	115905	111430	103291
25~29	137824	139097	138389	129695	132258	115999	125189
30~34	107970	108401	110058	109785	93072	86206	68867
35~39	169158	167234	163203	156177	156488	133199	123846
40~44	207207	218236	223784	225501	216587	217759	185867
45~49	203746	211717	229803	316844	332497	332436	347732
50~54	197606	204564	211047	244015	323589	326231	313386
55~59	237713	235569	232338	256191	302499	409196	420565
60+	828736	879860	932023	1193590	1490722	1860504	2425876

